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20세기 후반부는 적어도 한반도의 남쪽에서 일찍이 들도 보도 못한 엄청난 문화적 변동이 일어난 시기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화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도 아니고 문학인류학자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 살아온 삶의 자취들을 되짚어보면 부분부분은 미세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혁명적인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어온 것 같다.

우선 거주지만 하더라도 나는 산골 강변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촌놈으로 자라다가 아버지의 이농(離農)에 따라 대전으로 이사했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 약 15년을 서울시민으로 살았으나 직장이 바뀜에 따라 부산을 거쳐 대구에서 생애의 후반부를 보내고 있다.

고향 마을은 땀으로 수몰되고 선산의 산소들은 납골묘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은 종교에 관계없이 무조건 화장이다. 시제는 없어지고 대신 추석날 납골묘에서 차를 지낸다. 종손인 장조카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 기제사도 형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모시기가 힘들 것 같다.

모두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유교적 장례·제사 풍습이 불과 한 세대에 이렇게 바뀌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주거공간, 즉 집도 많이 바뀌었다. 생애 초기의 10여년은 초가집에 살다가 청소년 시절의 10년은 기와집이나 합석집 같은

나의 20세기 생활 문화사 서설

‘단독주택’(이 말을 쓰려니 갑자기 낯선 느낌이 든다. 그냥 ‘집’이었던 것이 언제부터 관공용어나 군대용어 비슷한 ‘단독주택’으로 바뀌었을까?)에서 살았고, 그 후 40년 이상은 건설회사 이름이 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나 도 아파트 세대임이 분명하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서울에서 하숙집, 자취방을 전전하다가 결혼 후 술한 전 세방을 거쳐 드디어 내 소유의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 후 조금씩 넓은 아파트로 옮겨온 셈인데, 중간에 서울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바람에 다시 서울로 진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부분적으로는 중산층의 착실한 삶을 살았으나, 크게 보면 재테크에 무능하여 중산층에서 탈락한 소시민으로 분류된 직하다. 아마 전 국민의 90% 이상이 생활환경 조사서에는 ‘중’으로 적었지만, 그 내용상의 편차는 그야말로 천양지차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인은 골프를 치는 사람과 치지 않는(또는 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 쪽에 속한다. 군대는 갔다 오고 외국유학은 못한

탓인지 크게 출세는 못했고, 서울서 대학에 다녔지만 결국 고향 여자과 결혼해서 나, 드러마틱한 반전이나 비약이 없는 평범하고 맛있는 삶이다. 남 앞에 내세를 장기도 없다. 노래나 춤, 바둑, 고스톱, 스포츠, 어느 것 하나 신봉한 것이 없고, 그저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은 웬만해 자신이 있다. 이걸 요즘은 트레킹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음식은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이다. 김치와 편장국을 비롯한 가정식 백반을 선호하지만, 자장면, 라면, 보

신포 같은 별식도 마다하지 않는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노래나 음악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 여자가수는 송민모, 백설희, 양희은을 좋아하지만, 국악 쪽에선 김용우나 김병자 같은 젊은 소리꾼들이 좋다.

밥 달린, 비틀즈도 존경하지만 신중현, 김민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피서 디스카우의 독일가곡을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맛도 기가 막히고, 관현악으로 편곡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소름을 돋게 만든다. 이른바 ‘강남좌파’ 비슷한 ‘크라이닉’이나 반지하 자취방의 대학생 같은 장가하도 들을 만하다.

사람과 세상은 얼마나 복잡 다양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재단하고 분류하는 순간, 그것은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몇 개의 개념으로 (가령 진보, 보수 등으로) 고착되지만, 정작 삶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무시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20세기 후반부를 살아온 나 같은 세대는 자기도 모르게 문화사적 전환기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 농경문화에서 도시산업문화, 또는 아파트문화로 이주한 첫 세대로 기록될 것 같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동사무소 주차장 공무원 차량이 ‘먼저’라니

광주시 각 자치구가 조성한 동(洞)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내 주차장이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한다. 광주시 서구·남구·북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50억5700만원의 특별예산을 들여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등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7곳의 주차장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차장에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주차를 해 민원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본보 취재진이 최근 상무2동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등 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민센터 등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도 인근 상가 차량들이 점령을 해 민원인들이 골목길이나 도로변 등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주차장은 각 구청이 주민들의 주차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거둬 조성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로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특히 이들 주차장은 땅값이 비싼 도심 한가운데 조성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주차 면수가 적어 효용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중흥3동 주민센터 주차장의 경우 시설비 2억6600만원 가운데 토지매입비가 전체의 71.8%인 1억9100만원에 달한다.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땅을 사들였지만 주차 면수는 20개가 채 안된다고 한다.

각 자치구는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 사실 조사와 효용성 등을 따져보고 민원인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정작 민원인은 주민센터를 찾을 때마다 빈 자리를 기다리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 어불성설이다.

차체에 땅을 비싸게 매입하기 보다 인근 부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득력 없는 車보험료 인상 당장 철회해야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올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조5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손보업계가 운전자를 ‘뺑’으로 아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소 6.1%에서 최대 6.8%에 이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했거나 이번 주 내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이 6.1%가량의 인상을 제출했거나 할 예정이며, 중소형사는 6.3~6.8%의 인상을 제출했다고 한다.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차 사고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 보험료를 올려받아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는 정비요금 인상이라는 이유를 추가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인상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올린 이익은 무려 1조5천억 원

이 넘었다. 특히 5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둔 최근 5년간 손보업계의 보험료 수익은 해마다 평균 13.4%씩 늘었다. 이는 손해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손해보험사들이 꾸준히 대규모 이익을 냈다는 의미다.

또한, 정비요금 인상 핑계를 대고 있으나 정비업체 과잉점구 단속 등 자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보험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데 대해 밀약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손보업계는 전혀 실득력이 없는 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상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약 계속 소비자를 ‘뺑’으로 삼으려 한다면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배영복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해이지만, 단순한 법 제정으로만 ‘공’을 세우려는 것은 급물살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9호 제4항)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

의 차이와 별다른 바 없는 듯하다.

얼마 전 장맛비로 인해 온몸을 흠뻑 젖은 채로 집 근처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여성장애인의 얼굴이 뇌리를 스쳐 간다. 그는 급경사 도로를 휠체어에 의지하여 차량이 지나가는 위험한 S형 도로부분의 약간 턱이 진 곳을 이동하려 몹시 삼가된 모습이었다. 나는 안쓰러워 보여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오히려 환한 미소로 거부의 화답을 받게 되었다. 좋은 일 한번 하려 했던

갈길 먼 ‘장애인차별금지법’

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바쁘다.

예컨대, 계단이나 승강기의 점자 표시는 오래돼 요철 표시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닳아 퇴색했다. 보도블록의 경우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유도용 요철블록을 설치했지만 들쭉날쭉하게 이용자께 불편을 주고, 대부분의 보도블록 위에 노점상의 상품이 진열돼 있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지하철 안의 점자블록도 각종 모퉁이를 도는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걸어야 목적이 도달할 수 있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인 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슬라이드가 내려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도의 높은 경계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높은 인

본인은 참 머쓱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는 전체의 0.5%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대부분이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를 겪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저 불쌍한 사람, 자신의 힘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서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최대 현안인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개방형 야구장 신축에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무장애사회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소외된 계층과 약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작은 관심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6만8000명의 장애인들도 광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밀폐된 목욕탕서 수면시 일산화탄소 질식 위험

요즘 목욕탕에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일반 목욕탕이나 찜질방 욕탕 주변에서 목욕객이 잠을 자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오래전부터 목욕탕에서 잠자는 게 일반적인 문화가 돼 버렸다.

그러나 목욕 도중, 또는 목욕탕에서 잠자다가 숨지는 사고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목욕탕이 대부분 지하이거나 지상의 아주 밀폐된 곳인데 그 안에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고 잠자다가 그걸 마셔서 중독돼 사망하는 것이다.

목욕탕에서는 가스 운수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 운수기가 설치된 목욕탕은 사람이 꽉 막힌 공간이다 보니 밀폐된 곳에서 가스가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켜 잠자는 사람을 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불완전하게 연소할 경우 10분 만에 허용치의 6배까지 넘는 양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수치까지 오르는 데는 2~3분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목욕탕 업주들은 목욕실 내부의 환기와 함께 항상 안전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목욕탕은 몸을 씻는 것 말고 찜질에 부담없이 잠잘 수 있는 서민들의 공간이므로 환기에 늘 신경 쓰고, 소방당국도 목욕탕의 환기상태를 상시로 점검해주기 바란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기고

안기석



민선 5기 들어 우리 광주시에서 ‘소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광주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은 바로 ‘소통부재’의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도 청벌과 보존, 돌구장 건설, 광주공항, 노사관계 등 정치·경제·사회 부문은 물론, 지역·계층·이념·세대 등 많은 영역에서의 분열이 바로 그 예이다.

조선시대 태종 조에 만들어진 신문고는 북소리를 듣고 관리가 나와서 평소

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아 한다. 소통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통합하고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반이 아닌 쌍방향 소통의 행정이 요구된다. 이것이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이다.

한국 사람만큼 심장, 마음, 감정을 중요시 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가족을 대하듯이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소통과 행복지수의 관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신분제도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조선사회에서 ‘임금이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신문고’라는 기발한 발상은 당시 시대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이 제도가 얼마나 속 시원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소통’이 정치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며, 갈등·반대·비판·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소통의 넓이는 이해의 폭과 비례하고 소통의 질은 진심의 정도와 비례한다.

요즘같이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더 이상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비관하고 심지어 시장을 이끌기도 한다.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시민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행정에 있어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신은 너무 높고 있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신은 어쩔 수 없지만 황제마저 구경궁궐 안에서 민심을 못 듣는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공직자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주고 행복을 나눠 준다면 시민자학적 감동행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 질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민선 5기 들어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표방하면서 매주 금요일을 ‘시장과 시민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산업·인문·학계, 시민단체 등 시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존재이유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시민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세심한 시정이어야 말로 광주시가 추구하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구현에 전력이 아닐까 한다.

다산 정약용은 성리학의 틀에 갇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조선후기에 목민심서를 지어, 관리들에게 백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역설하여 시대의 경종을 울리었다. 이제 갓 출범한 민선 5기,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다산의 말씀이 공직사회 전체에 일파만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시 지지행정과장》

無等鼓

이판(理判)사관(事判), 흔히 막다른 궁지에 몰렸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묘안이 없을 때 내뱉는 말이다.

우리 생활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 말은 사실 조선시대 불교에서 연유한다. 조선은 극에 달했던 고려말 불교의 폐단 척결의지에 신흥 유학자 사대부 세력의 국정참여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抑佛崇儒)했다. 따라

서 고려와 조선의 정권 교체와 함께 불교는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고려시대 왕실을 좌지우지했던 승려들은 천민계급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승려들은 생존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살아남은 승려 일부는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 기림이나 종이, 신발을 만드는 잡역(雜役)에 종사했다. 이를 두고 사관이라 했다. 한편에서는 정신적 수행을 통해 불법을 이었다. 이는 이판에 해당된다. 이판사관이 바로 여기에 비롯됐다.

고려와 조선 교체기 당시에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선택이었

다. 그래서 이판이나 사관은 그 자체로 ‘결장’을 의미하는 말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승려 가운데는 사찰 살림살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관, 경전을 해석하고 수행에 주력하는 이판으로 나뉘었다.

최근 입적한 해남 대흥사의 조실(祖室·사찰의 최고 어른 스님)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천운 큰스님은 쉬우면서도

정공을 찌르는 법문과 함께 입적 직전까지 참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무원 교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 정광 중학교 이 사장,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원장, 광주 우산종합복지관 관장 등을 맡아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한

마디로 수행에 충실하면서도 사찰의 살림살이와 중생의 삶까지도 챙기며 이판과 사관을 넘나든 것이다.

관념이나 현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중생을 위한 삶을 살다간 천운스님의 행적에서 위정자부터 시민까지 배울 점은 매우 많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이판사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72 정기부 2200-634 경제부 2200-641 사회1부 2200-612 <FAX 222-4267>	사회2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제작부 2200-679 체육팀 2200-663 사건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AX 227-9500> 다자인 2200-536 <FA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